

### 종립학교를 가다

(12) 해동중학교

‘까마득히 달려 내린 급수정기가 마침내 태평양에 다달아 대은 절영도 물새 날은 푸른 기슭에 그윽히 솟아 앉은 배움의 집’ 청마 유치환 시인이 작사한 해동중학교의 교가 가사다. 가사 그대로 해동중학교는 넘실대는 푸른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산기슭에 터를 잡고 교목인 소나무의 기상과 슬기를 담은 인재 길러내는 교육도량이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인격완성과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1946년 해동고와 함께 설립된 해동중은 1952년 학제개편으로 해동고와 분리된 이후 이사장 벽파스님의 지원을 받으며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스승제자리 찾기 운동, 독서지도 등의 특색사업을 펼쳐며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있다.

## 전일제 야외 특활... “교육이 살아 있어요”

해동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이 중앙 출입구에 봉안된 해수관음상이다. 1991년 봉안된 해수관음상은 해동중을 사랑하는 학부모와 선배들의 마음이 한데 모여 조성된 것이라 소중함이 더하다. 교학 성적을 전체 학과성적에 반영하지 않을 정도로 종교적인 강압이 없는 해동중이지만 모든 교사가 불자이고 여름 수련회나 특강 등에 8백 여명이 넘는 학생이 참석할 정도로 불법이 살아 쉰다. 이처럼 불법을 근간으로 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해동중의 힘은 바로 해수관음상에 모인 모두의 원력에서 출발한다.



△산과 바다가 인접한 해동중학교는 이사장 벽파스님의 지원아래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건학이념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은 수계법회 장면.

해동중은 유달리 깨끗하게 정돈된 교정과 화장실마저도 자랑거리다. 깨끗한 학교, 질서가 확립된 학교, 학력 신장을 이루는 학교라는 세 가지 목표아래 학교장을 추진위원장으로 교직원 모두가 합심해 일선에서 함께 뛰고 있기 때문이다. 화단 조성, 화장실 청결 운동, 교통질서, 실내 질서 등의 생활지도 확립과 더불어 외국어 교육강화, 정보교육 등 학력신장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ICT 교육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연구중이다. 이미 화장실 문화가 정착된 해동중은 화장실에 향수, 꽃 등이 비치되어 있고 특히 남녀공학이 되는 내년 3월을 대비 2억원의 지원을 받아 화장실, 무용실 등의 시설 보완에 한창이다.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내면의 풍요를 가꾸는 것. 해동중은 독서 지도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간접 체험을 쌓도록 하고 있다. 반마다 학급 문고를 비치해

### 자연학습장서 아재 키위 학부모 법회서 평생 후원

독서습관을 정착하고 흥미를 유발해 평균 3~4백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년에 2~3회 독서발표회를 개최하고 학년별 필독도서와 권장도서 목록을 비치해 독서 수준을 평균적으로 향상시켜내고 있다.

또한 해동중은 바다와 산을 인접한 자연 환경으로 자연 야외 학습의 장을 갖춘 보기 드

### 정보통신 시범학교 지정 1년 평균 3~4백권 독서

문 도심 학교다. 2천여 명의 여유부지를 학생들에게 개방, 학년별이나 반별, 또는 특별부서별로 각종 아재를 키우기도 하고 분재, 화본 등을 보살피고 있다. 휴과 자연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순화되고 여유로와 지는 것은 당연한 일.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해동중은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나



△대명 스님이 골굴사 마애불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분황사 모전석탑 우아함에 매료

본사 8월 지역불교문화기행 40명 참가

“분황사는 신라시대의 고승인 원효 스님과 자장율사가 수행 정진과 수많은 경전을 편찬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특히 저기 보이는 국보 제 30호인 모전석탑은 전설로 쌓은 탑을 모방한 것으로 부드럽고 힘찬 모습의 인왕상이 조각돼 있어 신라불교 건축의 걸작품으로 꼽히는 성보 문화재입니다.”

26일 오전 5시 아침예불이 끝난 뒤 대명스님(분황사 중무)은 분황사의 역사와 유래를 설명했다. 현대불교가 주창하는 지역불교문화기행에 참가한 40여명의 참가자들은 대명 스님의 안내로 경내를 둘러보았다. 이어 참가자들은 석굴암 본존불을 참배하기

위해 석굴암으로 이동했다. 지역 불교기행 순례단은 비록 보호막을 설치해 본존불 안으로 들어갈 순 없었지만 한 번이라도 더 부처님께 절을 올리기를 위해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기림사와 선운도로 유명한 골굴사, 감은사지 석탑, 문무왕릉, 신라문화역사관 등을 둘러보았다. 방학을 이용해 이번 기행에 참가한 김민혁군(서울 재동초등 3년)은 “석굴암 부처님처럼 멋있고 잘생긴 부처님은 처음 보았다”며 “앞으로는 일요일 어린이 법회에도 빠지지 않고 잘 나가겠다고 부처님께 약속했다”고 즐거워 했다. 김주일 기자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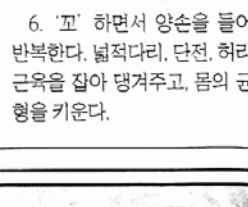
### 스트레칭

1. 엉덩이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서서 '이' 소리를 내며 오른쪽 팔로 기를 보낸다.
2. '이'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두 무릎을 굽히고 단전을 척추 쪽으로 수축하면서, 천천히 팔을 옆으로 벌린다.



### 무릎 굽히고 퍼며 몸 균형 비로 잡아

3. 단전을 이완시키고 구부러진 무릎을 피면서 발꿈치를 들어 다리를 곧게 편다. 동시에 손목을 들리고 손가락을 통해 에너지를 보낸다.
4. 손목을 이완시켜 팔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가져가면서, 자연스럽게 처음의 단전 자세로 돌아온다.
5. '뒹' 소리와 함께 왼팔로 동작을 반복한다.



### “자연스럽게 보리심 심어요”

해동중 정종근 교장



깨끗하고 정돈된 학교, 질서가 확립된 학교, 학력이 향상되는 학교, 이 세 가지는 정종근 교장(59)이 새 학교 문화장조를 주창하며 펼치고 있는 기본교육 방침이다. 이같은 교육방침은 학교 시설 정비, 환경 조성, 기초질서, 생활질서, 예절,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학교 장학 활동 다변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학교 재단이 운영하는 보현장학회와 연계 여러 단체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많다”고 자랑하는 정교장은 33년 전 해동중에 부임해 젊음을 해동중에서 보냈다. 진정 맑고 교직원에 대한 배려가 남달라 ‘컨슈리보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만큼 권위와 격식을 따지지 않는 정교장은 각종 행사나 수련회에서든 솔선수범하며 학생 지도에 나선다. 파라미터 부산지회 중등부 지회장과 포교사로 활동하며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교장은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도 강제적으로 전하려 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해동중에서 보낸 3년의 학교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에 접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학교장의 가장 큰 역할로 알고 항상 노력한다”고 해동중의 교육 분위기를 설명했다.

교법사실에서

이태욱교법사

### “비디오·사진 감상하며 포교”

중학생들에게는 불교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태욱(41) 교법사는 불교 문화, 불교 정신이 깃든 비디오, 사진 자료 등을 통한 흥미 있는 수업으로 불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확보했다. 교리나 가르침을 전달하려는 욕심이 앞섰던 초창기와는 달리 ‘불교가 좋다는 막연한 느낌’이나 ‘법당에 갔던 기억’ 등이 오히려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선배들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이 교법사는 딱딱한 교리보다는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불교적 내용을 주로 다룬 교학 수업으로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교직원 강화, 학생들의 정신 함양, 지역 사회기여 등을 크게 활동 방향으로 설정한 이 교법사는 학교 교직원 절반을 부산불교교육대학의 불교교양과정을 이수하게 한 보기 드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포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와 사찰 학생회와 파라미터 지도자로 활동중인 교사가 유독 많은 해동중의 자부심이 바로 이 교법사의 철저한 실행과 원력에서 비롯된 것.

해수관음상 봉안을 발원하여 1991년 학교 건물 중앙에 해수관음상을 모시며 교내 종교활동의 중심을 다진 이 교법사는 대외적으로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환희지문화원 등의 소임을 맡아 부산 불교계의 대사를 맡아 풀러가는 지역 불교계의 든든한 일꾼도 겸하고 있다.



△한국통신 주최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식 장면.

### 컴퓨터반 홈페이지 제작 ‘도사’

해동중의 동아리 활동은 매일 마지막주 전일제 특별활동으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3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일제 특별활동은 일주일에 한시간씩 하던 활동을 한 달에 1번 온종일 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낸 것.

특히 컴퓨터반은 부산, 경남 지역의 중등학교 재학생들이 참석하는 경진대회에서 227개의 중등부 경쟁자를 물리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컴퓨터반을 지도한 김태호교사는 중등단체 지도교사상을 받아 해동중의 앞서는 ICT교육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파라미터 불교학생회는 7월에 열린 지역문화재 애호 활동 전시회에서 영도대교에 대한 자료 조사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동중의 파라미터는 동아리 중 가장 가입 경쟁이 치열한 인기 동아리. 안시영 해동중 불교학생회 회장이 부산지부 회장을 맡고 있으며 파라미터 체전에서 3년승을 거두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http://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http://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http://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똑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